

시민 모두가 대표선수...함께 뛰고 함께 웃자

대회 코앞인데 관심도 낮고 시민서포터즈 참여율 크게 저조
친절의식이 성패 갈라...연대와 나눔의 광주정신 발휘할 때

광주U대회 D-51
성공 개최 시민에 달렸다

● 참여의식 확산 시급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광주 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의 참여의식 확산 등 대회 불조성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8면>

호남권 최대의 종합 국제대회 개최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이 개최지가 조차 모를 정도로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자원봉사자와 시민서포터즈를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도시의 품격을 알릴 기초질서도 엉망이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사 1층에 '부끄러운 자화상'을 주제로 도심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 더미, 불법 주차 차량 등 무질서한 현장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시민들의 자성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 등에 따르면 광주 U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에 6만명이 접수해 최종 1만1000명을 선발하고 교육중이다. 이는 애초 12만명 모집, 3만6000명 배치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시는 또 지난 3월~4월 U대회를 도울 시민 서포터즈 5만명 모집 캠페인에 나섰지만 3만6000여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광주시의 자원봉사자 가입률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다는 점에서 U대회에 대한 무관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실제 광주일보가 11~12일 이틀동안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광주 U대회 개최기간(월)을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잘 모르다'거나 '잘못된 답변'을 한 시민은 10명(50%)이나 됐다.

실문에 응답한 시민 대부분 "U대회는 대학생들의 행사가 아니냐"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자칫 대회 흥행 실패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세계 170여개국에서 2만 여명에 이르는 선수단을 맞이해야 하는 만큼 광주 시민의 '국제 매너' 업그레이드도 요구된다. 그동안의 여러 국제 대회에서 입증됐듯 개최도시 시민의 친절의식 등이 성공 개최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불법 주차차,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지키기를 비롯한 불편한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 선진화도 꼭 개선해야 할 숙제다.

보도 위 첨·검 벨기, 공공장소 흡연·휴대전화 사용 자제 등 작고 사소한 듯 보이지만 도시의 품격과 직결되는 기본 에티켓을 지키는 자세도 갖춰야 한다. 식·숙박업소의 불편한 서비스와 바가지 상환 등도 적절해야 할 대상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력, 나눔과 공유의 광주정신으로 극복해온 시민의 힘을 다시 한번 모아야 할 시점이다"며 "시민과 함께 광주공동체의 힘으로 모든 지구촌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대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월 나눔정신 실천...광주 광덕고 네팔 돕기장터

광주 광덕고등학교(교장 김갑수) 학생회가 12일 5·18민주화운동의 나눔 정신을 되새기는 '네팔 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나눔-기부 장터'를 열었다. 내놓은 물품은 광덕고 학생·학부모·교직원·동문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학생회는 이를 판매해 수익금 전부를 네팔 구호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 성정이 읽어지네!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음식자원화시설 약취 고동 ▶6면

피카소 '알제의 여인들'
1968억 사상 최고 경매가 ▶16면

새정치 내홍 '점입가경'

김동철 "막말" 정청래 출당 조치 안하면 내가 결단"

일반당원 70여명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요구서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등 지도부의 리더십이 실종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같은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광산 갑)은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지도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의 체질을 뺏속까지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출당 조치를 문재인 대표에게 요구한다"며 "우리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내 일반당원 70여명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요구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당원들은 요구서에서 "정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심판원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일당 요구서가 접수된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정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등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14일 오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심의와 징계 여부는 당내 갈등을 재점화하는 '시한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규상 윤리심판원 징계의 종류는 가장 높은 수위인 당적 박탈부터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당내 4선 이상 중진의원들도 이날 조찬 모임을 갖고 최근의 사태와 관련, "국민과 당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당 지도부는 의사결정을 공식기구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모임에 참석한 중진들이 대부분 범주류 성향이라는 점을 반영하듯, 지도부 사퇴보다는 '질서있는 수습'에 방점이 찍혔다.

국회 본회의 참석차 지역구인 여수에 상정된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 입장을 거듭 밝힌 뒤, "문재인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방법과 의지를 말아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내 비주류 일각에서는 '분당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임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18 기록관 오늘 광주 금남로에 개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가톨릭센터 건물에 자리 잡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13일 개관한다.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매일신문 1980년 6월 2일자에 실린 김준태 시인의 '아이!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라는 시가 계엄사 검열을 당한 상태(왼쪽)와 검열 후 실제 발행된 신문이 기록관에 전시돼있다.

▶관련기사 3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U대회 축구장 공사 재개...광주지법,가처분 취소신청 인용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2일 광주시가 A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각국 대표단이 도착하는 다음달 27일까지는 인조잔디 경기장 설치공사와 국제축구연맹(FIFA)의 인증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면서 "기존 업체인 B사가 공사를 재개하면 이달 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지만 적법한 낙찰자라고 주장하는 A사가 새로 공사를 맡으면 다음달 중순이나 공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주) | 상설차량지원부 | 광주 점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장부량인 표준 연비 및 용량 • E 200 1,999cc, 1,635kg, 7G-TRONIC PLUS, 배연량(도시/고속/합계) 10.3km/l, 14.6km/l, 13.8km/l, CO2배출량 145g/km • E 220 CDI 2,143cc, 1,788kg, 7G-TRONIC PLUS, 배연량(도시/고속/합계) 14.2km/l, 18.5km/l, 16.2km/l, CO2배출량 126g/km •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35kg, 7G-TRONIC PLUS, 배연량(도시/고속/합계) 12.4km/l, 17.0km/l, 15.2km/l, CO2배출량 141g/km • E 300 3,499cc, 1,790kg, 7G-TRONIC PLUS, 배연량(도시/고속/합계) 11.0km/l, 16.4km/l, 13.8km/l, CO2배출량 183g/km • E 300 4MATIC 3,499cc, 1,800kg, 7G-TRONIC PLUS, 배연량(도시/고속/합계) 10.9km/l, 16.4km/l, 13.8km/l, CO2배출량 183g/km • E 350 4MATIC 3,499cc, 1,800kg, 7G-TRONIC PLUS, 배연량(도시/고속/합계) 10.9km/l, 16.4km/l, 13.8km/l, CO2배출량 183g/km • E 400 4MATIC 2,999cc, 1,935kg, 7G-TRONIC PLUS, 배연량(도시/고속/합계) 11.1km/l, 15.9km/l, 13.8km/l, CO2배출량 183g/km • E 63 AMG 4MATIC 5,461cc, 2,02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배연량(도시/고속/합계) 17.6km/l, 16.3km/l, 16.3km/l, CO2배출량 231g/km ※ 본 연비는 JIS2005에 의한 연비시험 조건에서, 운전양상, 차량양자 및 풍향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